

# Caligula와 Le Malentendu에 서 Camus의 不條理思想

黃 乙 文

La pensée de l'absurde de Camus dans "Caligula  
et Le Malentendu"

*Hwang Earl-Moon*

〈목 차〉

- |            |                  |
|------------|------------------|
| 1. Résumé  | 6. 不條理한 自由       |
| 2. 序 言     | 7. 解 放           |
| 3. 不條理한 世界 | 8. 結 言           |
| 4. 不條理의 認識 | 9. Bibliographie |
| 5. 反 抗     |                  |

## 1. Résumé

Après la guerre mondiale, la société moderne découvre ne pas étouffer les désordres et les crimes; seulement par la morale traditionnelle.

A mesure que l'ordre de ce monde et la morale traditionnelle s'écoulent, l'esprit de l'homme vagabonde dans le désordre et l'inquiétude.

Sous la situation désordonnée, L'homme connaît soudainement ce monde est irrationnel, en conséquence de cet éveil, on va éprouver d'être soi-même dans l'interruption du monde qui nie l'autolité et la morale conventionnelle. De la façon pour vivre dans cet irrationnel, cette étrangeté et ce désordre du monde, Camus tire trois conséquences: la révolte, la liberté et la passion de sa pensée "absurde" qui est nommé de toutes ses oeuvres.

Il décrit ainsi sa pensée de l'absurde dans ses deux pièces:

"Caligula et Le Malentendu."

## 2. 序 言

현대인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하여 심각한 이 세계의 불합리성을 체험하고 전후 사회의 혼란이나 범죄도 기성 도덕과 윤리만으로는 다스리기 힘들게 된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조리 사상은 기성의 지성, 도덕 윤리를 일단 원점으로 돌려 놓고 외계와의 단절 속에서 모순된 사실을 그대로 인식하려 한다. 기성의 권위나 도덕을 일단 부정하는 상태인 외계와의 단절에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현대문명에 대한 반항, 자유, 열정을 통해 적극적인 생활 태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철학적 감수성으로 Camus는 그의 저작품을 통해 “부조리”라 명명된 자신의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Camus의 부조리란 인간과 세계 사이의 근원적 무의미와 虛妄속에 살아가며 감각에만 의지하던 인간이 홀연히 인생이란 살아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방법론적 회의를 가지고 보면 습관이나 권태 속에 매몰되어 버리는 삶의 무의미성을 각성하게 되고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이 세계가 낯설음으로 나타나 세계의 原初的 敵意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나”와 “타인” 혹은 “나” 자신 속에서도 어처구니 없게 발견되어 인간이 인간 앞에서 해아릴 수 없는 불안과 낯설음, 또는 자신의 사진이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도 마치 타인처럼 느끼게 되는 단절감을 맛보게 되는데, 그것이 부조리를 인식하는 시초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식작용에서 인간과 세계의 비합리성과 閉塞을 향한 욕구의 대치 속에서 부조리가 태어나지만, 그것들은 하나의 통일된 의미와 논리적 사상의 질서로 파악하려는 욕구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데 왜냐면 “나”를 둘러 싸고 있는 세계를 어떤 통일적이고 인간적인 가치의 체계안에 명확한 진리로 정리해야만 “나”의 존재 이유와 삶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Camus는 “산다는 것은 부조리를 살게하는 것이다. 부조리를 살게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도피하지 않고 부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虛望 따위는 지니지 않은채 인간과 인간 자신의 어둠과 끊임없는 대결을 벌이는 현재의 연속이 부조리한 인간의 이상이란 것이다.

이리하여 Camus는 인간에게 그 이성의 욕구와 세계 자체 사이의 끊임없는 대립을 유지하도록 하는 성실성으로, “반항”을, 정신과 행동의 자유: 내일과 희망이 없는 인간의 삶에 대한 순수한 욕망 이외의 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자유”를, 삶을 필사적으로 불태우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많이 사는 것으로 “열정”이란 세 결론을 부조리 사상에서 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부정적 부조리 사상을 “극”의 형식을 빌어 두 비극 작품인 “Caligula”와 “Le Malentendu”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부조리 사상에 대한 시론인 “Le Mythe de Sisyphe”와 소설 “L'Etranger”를 대비시켜가며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근본 취지이다.

## 3. 不條理한 世界

Camus는 철학자나 소설가이기 전에 한 연극인으로 출발한 관계로 그의 소설이나 시론에는 항상 연극적인 감각이 충만해 있는데,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대라면 Camus 작품 세계의 무대

는 부조리한 관점에서 무미건조하고 인간의 합리에 대한 욕구에 대해 몰합리한 모순을 들어내는 이 세계가 어디서나 등장하여 마치 사막과 같은 황량한 느낌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부조리에 의한 대표적인 소설 “L’Etranger”에서 부조리한 인간인 주인공 “Meursault”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바로 그 다음날 애인 “Marie”와 하룻밤을 지내고 혼자 일요일 낮 아파트 창밖을 내다 보며 부조리한 세계의 일면을 노출시키고 있다.

Ma chambre donne sur la rue principale du faubourg. L’après-midi était beau.

Cependant, le pavé était gras, les gens rares et presses encore.

C’étaient d’abord des familles allant en promenade, deux petits garçons en costume marin, la culotte au-dessous du genou, un peu empêtrés dans leurs vêtements raides, et une petite fille avec un gros noeud rose et des souliers noirs vernis.<sup>1)</sup>

여기서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사실에는 아무 느낌도 없이 한낱 창 밖에서 일어나는 무의미한 상태와 동작만을 바라보고 있는 무감각한 인간, 오직 본능적인 감각에 의존하여 사랑도 후회도 없이 살아가는 부조리한 인간이 존재하는 단조롭고 권태로운 이 세계가 바로 부조리한 세계이며, 기계적인 삶의 연속과 권태와 무의미한 세계를 강조하기 위해 한 가족이 산책 떠나는 모습과 그들의 옷차림, 거동까지도 자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Meursault가 보고 있는 여기서의 세계는 평화와 쾌락이 무미건조와 권태라는 부조리한 세계를 외형상으로 감싸고 있어서 일종의 평온감을 주기도 하지만, “로마”의 폭군 황제 “Caligula”의 세계는 로마제국의 귀족들이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인간의 근본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부조리한 인간 황제가 행하는 여러가지 모욕도 堪耐하고 비너스로 기장한 Caligula에게 헌금을 바친다든가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양보해야만 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계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 질서의 윤리에 역행하는 Caligula의 조종에 의한, Caligula란 부조리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한 陳腐한 세계이다.

다음 대사는 Caligula의 윤리의 타락상을 표면으로 들어낸 것이지만, 그 이면은 폭군이라는 인식을 강조하면서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도 암시함으로서 인간의 합리에 대한 욕구에 위배되는 몰합리한 세계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Premier patricien-Mais enfin, qu’avez-vous et pourquoi ces lamentation? Rien ne l’empêche de continuer. Il aimait Drusilla, c’est entendu. Mais elle était sa soeur, en somme. Coucher avec elle, c’était déjà beaucoup. Mais bouleverser Rome parce qu’elle est morte, cela dépasse les bornes<sup>2)</sup>

는 부조리란 관점에서 무미건조하고 인간의 합리에 대한 욕구에 대해 불합리한 모순을 들어내는 이 세계가 어디서나 등장하여 마치 사막과 같은 황량한 느낌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부조리에 의한 대표적인 소설 “L’Etranger”에서 부조리한 인간인 주인공 “Meursault”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바로 그 다음날 애인 “Marie”와 하룻밤을 지내고 혼자 일요일 낮 아파트 창밖을 내다 보며 부조리한 세계의 일면을 노출시키고 있다.

Ma chambre donne sur la rue principale du faubourg. L’après-midi était beau.

Cependant, le pavé était gras, les gens rares et presses encore.

C’étaient d’abord des familles allant en promenade, deux petits garçons en costume marin, la culotte au-dessous du genou, un peu empêtrés dans leurs vêtements raides, et une petite fille avec un gros noeud rose et des souliers noirs vernis.<sup>1)</sup>

여기서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사실에는 아무 느낌도 없이 한낱 창 밖에서 일어나는 무의미한 상태와 동작만을 바라보고 있는 무감각한 인간, 오직 본능적인 감각에 의존하여 사랑도 후회도 없이 살아가는 부조리한 인간이 존재하는 단조롭고 권태로운 이 세계가 바로 부조리한 세계이며, 기계적인 삶의 연속과 권태와 무의미한 세계를 강조하기 위해 한 가족이 산책 떠나는 모습과 그들의 옷차림, 거동까지도 자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Meursault가 보고 있는 여기서의 세계는 평화와 쾌락이 무미건조와 권태라는 부조리한 세계를 외형상으로 감싸고 있어서 일종의 평온감을 주기도 하지만, “로마”의 폭군 황제 “Caligula”의 세계는 로마제국의 귀족들이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인간의 근본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부조리한 인간 황제가 행하는 여러가지 모욕도 堪耐하고 비너스로 기장한 Caligula에게 헌금을 바친다든가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양보해야만 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계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 질서의 윤리에 역행하는 Caligula의 조종에 의한, Caligula란 부조리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한 陳腐한 세계이다.

다음 대사는 Caligula의 윤리의 타락상을 표면으로 들어낸 것이지만, 그 이면은 폭군이라는 인식을 강조하면서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도 암시함으로써 인간의 합리에 대한 욕구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세계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Premier patricien-Mais enfin, qu’avez-vous et pourquoi ces lamentation? Rien ne l’empêche de continuer. Il aimait Drusilla, c’est entendu. Mais elle était sa soeur, en somme. Coucher avec elle, c’était déjà beaucoup. Mais bouleverser Rome parce qu’elle est morte, cela dépasse les bornes<sup>2)</sup>

누이동생 Drusilla와의 근친상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개인적인 폭력이 윤리와 기존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다. 3막극인 Le Malentendu는 그 줄거리 자체가 부조리한 세계로 될 수 있다. 외딴 전원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모, 너가 부유한 손님이 나타나면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돈을 몽땅 빼앗고는 시신을 강물속에 던져 버린다. 어느날 20년 전에 고향

1) L’Etranger: p.37 Gallimard, 1978.

2) Caligula: p.19 Gallimard, 1970.

을 떠났던 아들 Jan이 돌아와서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놀래 주려는 장난기 섞인 마음에서—실은 타향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좀더 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르지만—자신의 신분을 감추었다가 다른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강물에 던져지고, 그 다음날 사실을 알게 된 모녀도 자살한다는 내용인데, 이 작품에서는 두 죄인들이 살아가는 황량한 장소, 태양도 없고 비가 자주 내려 진흙이 질척거리는 시골과 그 시골의 외진 곳에 위치한 여관이 바로 우리에게 부조리한 세계로 제시된 Camus가 창작해 낸 부조리한 세계이고, 마치 신문의 사회면 기사 같은 줄거리에서 우리는 무질서와 가공할 최악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실제로 두 모, 녀의 대화를 보면

Martha—Mère, il faudra le tuer.

La mère. (더욱 낮은 목소리로)—Sans doute, il faudra le tuer.

Martha —Vous dites cela d'une singulière façon.

La mère—Je suis lasse en effet, et j'aimerais qu'au moins celui-là soit le dernier, Tuer est terriblement fatigant. 이하 생략<sup>3)</sup>

죽임을 당당해야만 할 숙명을 지닌 손님이자 아들인 Jan이 여관에 오기전의 이 대화에서 우리는 질식할 것 같은 폐쇄된 느낌과 장래라는 전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삭막한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L'Etranger의 단조로움에서 오는 권태감, Caligula의 陳腐함에서 기인되는 역겨움, Le Malentendu에서 질식할 것 같은 긴박감 등으로 Camus의 부정적 3작품에서 부조리한 세계는 각기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Camus가 자기의 부조리 사상을 전개시키는 터전으로 제시하여 Sympatie를 형성하려는 표현 기법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사회악과 부정에 敢然히 맞서서 대항하려는 태도가 함축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 4. 不條理의 認識

Le Myshe de Sisyphe에서 Un jour seulement, le "pourquoi" s'élève et tout commence dans lassitude teintée d'étonnement. "Commence" ceci est important. La lassitude est à la fin des actes d'une vie machinale, mais elle inaugure en meme temps le mouvement de la conscience.<sup>4)</sup>

라고 Camus는 부조리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기계적인 일상생활, 똑같은 리듬의 생활에서 권태가 인간의 의식을 눈뜨게 하므로 권태가 부조리를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반해 Caligula는 친우 Hélicon의 Et qu'est-ce donc que cette vérité, Caïus?란 물음에 힘없는 목소리로 Les hommes meurent et ils ne sont pas heureux. ……중략 Si jedors, qui me donnera la lune?<sup>5)</sup> “인간들은 죽어가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란 Caligula의 답변은 정부였던 Drusilla가 죽자 그녀의 屍身 앞에서 인생의 진실, 즉 숙명을 느낀 Caligula가 이 세계가 신에 의한

3) Le Malentendu: p.168, Gallimard, 1970.

4) Le Mythe de Sisyphe: p.27 Gallimard, 1978.

5) Caligula: p.27-28 Gallimard, 1970.

구원이나 절대적 행복이 약속된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무의미할 뿐이란 부조리한 세계의 인식인 동시에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볼 수 있는데, 거의 태양과 바다로 일관된 Camus의 작품에서 Caligula만이 “la lune” 즉 “달”을 원하고 “달”을 자주 찾지만, 결국 찾지도 구하지도 못하고 만다. 그래서 여기서의 달이란不在이거나 虛妄일 수 있다. 不在를 원하고 不在가 필요하다는 말은 그 자체가 부조리한 것이다. 없는 달을 찾아 다니는 것 결국 아무것도 바랄것 없이 공허한 이 세계에서 인간이 무언가를 막연하게 기대하다가, 불현듯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에서 기인되는 부조리 인식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Le Malentendu에서 作中 가장 중요한 인물이 Martha인데 그가 느끼는 부조리는 Caligula와는 또 다른 면을 제시하고 있다.

Martha--Non pas pour l'argent, mais pour l'oubli de ce pays et pour une maison devant la mer. Si vous êtes fatiguée de votre vie, moi, je suis lasse à mourir ce cet horizon fermée, et je sens que je ne pourrai pas y vivre un mois de plus. Nous sommes toutes ceux excédées de cette auberge, et vous, qui êtes vieille, voulez seulement fermer les yeux et oublier. Mais moi, qui me sens encore dans le coeur un peu des désirs de mes vingt ans, je veux faire en sorte de les quitter pour toujours...이하 생략<sup>6)</sup>

Martha가 살인하는 이유가 돈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평선이 꼭 막혀 한달도 더 못살 것 같은 폐쇄된 곳에서 진저리를 느끼고 “바다가 앞에 있는 집”을 위한 것이란,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에서 권태로 인한 Meursault의 경우나 공허한 세계에서 “달”을 원하며 부조리를 인식하는 Caligula의 경우보다 훨씬 더 적나라 하고 적극적인 부조리의 인식이며 참된 삶을 위한 강렬한 의지를 보인 것인데 “삶에 대한 絶望없이 삶에 대한 希望도 없다”는 부조리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최대한 누리려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부조리의 인식에서 기인되는 것이며, 부조리의 인식은 자아의 인식과 일맥 상통하고 바로 실존하는 인간의 인식이라 할 수 있다.

## 5. 反 抗

부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난 후가 가장 문제가 된다. 이 세상이 空虛하고 무의미하며 무미건조한 것이라면 인간의 이성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의문의 결과로 자살을 하게 된다면, 삶의 패배를 자인하게 되어 결국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한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끌어 내게 되고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方法論的 懷疑로 삶에 더욱 더 큰 의미를 부여하려는 Camus의 의도에 상반된다. 그래서 Camus는 Sisyphé의 신화에서 “Vivre, c'est faire vivre l'absurde. Le faire vivre, c'est avant tout le regarder”라고 단서를 붙였는데, 이 말의 뜻은 부조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나면, 이 세계가 살아갈 만한 의미가 없을 수록 더욱 잘 살아 갈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6) Le Malentendu: p.199, Gallmard, 1970.

그것은 부조리를 인식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反抗이란 것인데, 여기서의 반항은 희망도 없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인간이 인간 자신과 세계 사이의 끊임없는 대결 속에서 최대한으로 생에 대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태도를 말한다.

Caligula는 3막 중장에서 자기를 제거하려는 음모자 Cherea에게...*Tu vois, conspirateur! Elle font, et à mesure que cette preuve disparaît, c'est un matin d'innocence qui se lève sur ton visage. L'admirable front pur que tu as, Cherea. Que c'est beau! un innocence, Que c'est beau!...* 중략 Continue, Cherea, poursuis jusqu'au bout le magnifique raisonnement que tu m'as tenu. Ton empereur attend son repos. C'est sa manière à lui de vivre et d'être heureux7)

음모를 알면서도 피하거나 叱責하지 않고 정면으로 당당히 맞서는 황제의 태도에 Cherea regarde Caligula avec stupeur. Il a un geste à peine esquissé.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자기에게 닦쳐올 극한 상황을 해소하려지 않는 Caligula의 태도는 인간의 이성애 어긋나는 矛盾이다. 그러나 Camus가 주장하는 “산다는 것은 부조리를 살리는 것이고, 부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란 말 자체가 부조리인 모순의 해소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모순된 Caligula의 태도는 Camus의 이론적 주장을 실제 행동으로 具現한 것이며, 절망적인 조건하에서 능동적으로 克己해나가는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함축한 반항으로 볼 수 있다.

## 6. 不條理한 自由

닥쳐올 운명을 예견하고 부조리를 직시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 온 Caligula는 이윽고 마음의 평온에서 자유를 느끼게 된다. 그 자유는 부조리를 인식하고 반항이란 살아가는 태도를 터득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유인데, 여기서 마음의 자유란 정신과 행동의 자유이고 삶에 대한 순수한 욕망 외에는 무관심이며 희망과 내일이 없는 인간의 處分可能性으로서의 자유이다.

그래서 Caligula는 절대적인 황제의 권력으로 기존 질서와 윤리에 역행하고 자연의 법칙까지도 말살하려 들며, 이렇게 외친다.

“Aujourd'hui, et pour tout le temps qui va venir, ma liberté n'a plus de frontière” 자신의 자유에는 한계가 없다는 선언보다 더 절대적인 자유의 驅使는 없을 것이다. Caligula의 자유는 늙은 애인 Caesonia와의 대화에서 계속된다.

Caligula(흥분이 고조되어)...*je veux mêler le ciel à la mer.*

Caesonia(그 앞에 서서 애원한다)...*Il y a le bon et le mauvais, ce qui est grand et ce qui est bas, le juste et l'injuste.*

*je te jure que tout cela ne changera pas.*

Caligula(똑 같은 태도로)...*Ma volonté est de le changer (8)*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에 편승한 자유를 갈구하는 Caligula의 욕망은 바로 자유의 시험일 따름이

7) Caligula: p.117 Gallimard, 1970.

8) Caligula: p.41~42 Gallimard, 1970.

고 결코 자연의 법칙의 법칙을 극복할 수 없을 뿐더러 부조리란 관념에서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신이 가진 능력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질서에 완전히 역행하는 자유의 시험은 결국 자신의 세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결과를 끌어내게 되는데, Le Malentendu에서 Martha는 자신의 순수한 삶을 위해 살인이라는 자유를 시험하고 난 뒤 喜悅에 찬 목소리로 외친다.

Martha...Oui, tout ira mieux, je l'espère. Mais ne vous plaignez pas encore et laissez-moi être heureuse à loisir. Je redeviens la jeune fille, que j'étais. De nouveau, mon corps brûle, j'ai envie de courir...중략 Qu'importe maintenant le crime! Je nais pour la seconde fois, je vais rejoindre la terre ou je serai heureuse.<sup>9)</sup>

마음과 행동의 자유를 느낀 부조리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시험인 살인을 끝낸후 자신의 순수한 삶 이외의 것에는 무관심한 상태에서 느끼는 회열이지만, 동시에 그녀는 끔찍한 공포를 증대시키고 파괴된 세계질서의 흉악한 양상을 하나 더 증가시킬 따름이며, 폭군 황제 Caligula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세계도 파멸시키게 되는데 Le Mythe de Sisyphe에서 Camus는 이러한 자유에 대해

On voudrait lui faire reconnaître sa culpabilité. Lui se sent innocent. A vrai dire, il ne sent que cela, son innocence irréparable. C'est elle qui lui permet tout<sup>10)</sup>

라고 부조리한 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부조리한 인간에게 그의 유죄성을 인식시키려고 하나 그 자신은 무죄라고 느끼고, 그러한 무죄의 느낌이 그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處分可能性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 가능성을 인식한 그들의 세계가 결국 파멸로 귀결되는 것은 부조리를 잘못 이해한 반항의 태도가 방종이나 개인적, 집단적 “테러”란 왜곡된 자유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도 보여진다.

## 7. 解 放

Caligula나 Martha, Meursault의 종말이 모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완전한 자유 즉 해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종장처리 기법상의 차이는 있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해방에 대한 Sympatie도 그 양상을 조금씩 달리한다.

우선 L'Etranger에서 Meursault가 사형집행 전날 밤

Je m'ouvrais pour la première fois à la tendre indifférence du monde. De l'éprouver si pareil à moi, si fraternel enfin, J'ai senti que j'avais été heureux, et que je l'étais encore. pour que tout soit consommé, pour que je me sente moins seul, il me restait à souhaiter qu'il y ait beaucoup de spectateurs le jour de mon exécution et qu'ils m'accueillent avec des cris de haine.<sup>11)</sup>

9) Le Malentendu: p.232, Gallimard, 1970.

10) Le Mythe de Sisyphe: p.75, Gallimard, 1978.

11) L'Etranger: p.189, Gallimard, 1978.



여기서 보면 Meursault는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아무런 후회도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초연한 자세는 그가 항상 옳았고 또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평정과 일종의 행복감마저 느끼게 되고 무관심으로 표현된 무미건조한 세계가 오히려 다정스럽게 보이기도 하며 자신의 사형집행날 되도록 많은 관중이 몰려 오기를 바라는 것은 부조리한 인간의 정신적 처분 가능성에 연유된 해방감의 발로일 것이나 Caligula의 경우는 자신이 이 세계에 대해 오해했다는 일종의 후회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닥아오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점이 Meursault와는 다르다.

Caligula가 종막에서 살기 등등한 태도로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을 향해 외친다.

Caligula! Caligula! Toi aussi, toi aussi, tu es coupable. Alors, n'est-ce pas, un peu plus, un peu moins! Mais qui oserait me condamner dans ce monde sans juge, ou personne n'est innocent!<sup>12)</sup>

기존질서를 말살하고 자연의 질서까지 바꾸려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려던 Caligula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자폭하는 결과를 맞게 된 순간에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고 후회하며 운명을 맞아 들이는 것이 Meursault의 詩情的인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그의 마지막 외침 “Je suis encore vivant”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 주는 효과는 있어서 Le Malentendu의 종장처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분위기가 되고 있다.

Le Malentendu에서 Martha의 죽음은 그렇게도 열망하던 태양이 있는 나라로 가게되는 즉, 삶에 대한 열정의 성취에서 얻은 해방감에서 그녀 자신의 종말은 평온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Jan의 아내인 Maria에게...전략

Mais si vous vous sentez trop lâche pour entrer dans cette paix muette, alors venez nous rejoindre dans notre maison commune. Adieu ma soeur! Tout est facile,

Vous le voyez. Vous avez à choisir entre le bonheur stupide des cailloux et le lit gluant ou nous vous attendons.<sup>13)</sup>

이라고 작별인사를 하는데, 부조리를 인식 못하는 Maria에게 죽음이란 두렵기 짝이 없는 것, 공포에 찬 목소리로 신의 구원을 청하자 이제까지 한마디 말도 없던 Le vieux가 “Vous m’avez parlé?”

Maria(그를 향하여)...Oh ! je ne sais pas! Mais, Aidez-moi, car j’ai besoin qu’on m’aide. Ayez pitié et consentez à m’aider!<sup>14)</sup>

이토록 애절하게 구원을 호소하는 데도,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Non”이라 딱 찢라 거절해 버리는 종장의 처리가 끔찍하고 섬뜩한 느낌과 함께 막연한 좌절감에서 오는 공포도 느끼게 함으로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Meursault나 Caligula의 경우보다 훨씬 더 삭막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표면에 감

12) Caligula: p.153, Galimard, 1970.

13) Le Malentendu: p.253, Gallimard, 1970.

14) Le Malentendu: p.253~254, Gallimard, 1970.

취진 內在的 의미로는 부조리를 인식하고 마음과 행동의 자유에서 해방을 느낀 Martha와 그렇지 못한 Marie와의 죽음에 대한 관념의 차이를 대조시켜 부조리한 인간만이 갖는 해방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 주연이 다 죽음으로 가는 것만은 공통되는 데, 여기에서 죽음의 의미는 부조리한 세계에 부조리한 인간이 태어나고 부조리란 말도 생기기 마련이겠지만 정상적인 세계, 평화롭고 풍요로운 이상향의 세계라면 부조리란 말 자체가 필요 없게 될 것이므로 Camus가 그의 부조리 사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회악에 도전하고 인간존엄성의 회복을 위한”이란 작은 뜻을 넘어 인류의 영원한 이상향의 설계로 보는 것이 부조리 사상이 否定에서 肯定으로 轉移되어 가는 것으로 보아서 타당할 것 같다.

## 8. 結 言

1940년대 유럽은 세계 제1,2차대전을 겪는 동안 인간들의 불안과 동로로 정신체는 궁지와 자신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인간은 기성의 모든 것에 대해 전면적인 반항과 불신사조에 몰들게 되며 신에 의한 인간의 기본 윤리관이나 사회질서, 행복의 추구, 낙천적인 Humanism 시대는 종말을 고한 것 같은 상황속에서 회의에 젖은 인간은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 그리고 신에 의해 창조된 이 세계의 신에게서 분리된 윤리, 도덕에 背理感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사회풍조에서 부조리 사상이 胎動해서 “삶에 대한 절망없이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 치유와 위안은 죽음과 불안에 대항하여 싸우는 데는 빈약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등 인간근본 문제들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래서 Camus의 부조리 사상에 입각한 작품들은 美學이나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근본 문제를 따져려는 철학문학적 동시에 심각한 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동요 속에서 확실한 것은 오직 “나”라는 “自我”밖에 없으므로 스스로 자아를 설정하고 자기의식 속에 살아가는 實存方法을 제시하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

기성사회의 관례와 도덕에 역행하여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다 자멸하는 폭군 황제 Caligula의 비극과 폐쇄되고 희망없는 생활을 벗어나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Martha의 범죄를 그린 Le Malentendu란 두 희곡을 통해서 사회악에 도전하고 폭력과 부정을 배제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맞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Camus는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 9. Bibliographie

1. Caligula suivi de Le Malentendu: Albert Camus, Gallimard, 1970.
2. Le Mythe de Sisyphe: Albert Camus, Gallimard, 1978.
3. L'Étranger: Albert Camus, Gallimard, 1978.
4. Camus: Par Jean-Claude Brisville, Gallimard, 1970.
5. Camus: Par Robert de Luppé: Editions Universitaires, 1962.
6. Manuel des études littéraires françaises: Hachette, 1973.

